

신사고 이론20

이면우 지음



삶과꿈

이길 항해가 아니면 출발하지 말아야 한다. 이길 항해가 없다면 이길 수 있는 항해만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믿음직스러운가? 우리는 이 순신 제독의 후예가 아닌가!

10. 사회공적(社會公敵)이론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 가지 부류의 사회공적이 있다

1.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 있는 경우
2.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갖고 있는 경우
3.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경우

사회공적이론은 광화문 뒷골목에 있는 곰탕집에서 탄생하였다. 얼마 전에 차관을 지낸 적이 있는 서정욱 박사와 만나 점심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나 기업의 최고 경영진 중에 사회공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필자가 사회공적에 해당되는 부류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 있는 경우”와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말하였더니, 서정욱 박사가 황급한 목소리로 “또 있다, 또 있어. ‘무식한 놈이 부지런한 경우’도 거기 집어 넣어라”라고 하였다.

얼마 전에 지존파의 악독한 행위를 규탄하는 기사가

매일 사회면을 매운 적이 있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비록 지존파와 같이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국가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공적의 행태는 어찌 보면 지존파보다 훨씬 더 악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 사회공적이 대접받는 사회

사회공적의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에 대해 사회가 관대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학력 소지자이며, 명문대를 졸업하였고, 주위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족들도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의 잘못된 관용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공적이 되는 길을 인생목표로 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사회공적의 첫 번째 부류는 무식한 놈이 전문직에 앉아 있는 경우다. 이들의 취입사를 들어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라는 것이다. 이 취입사의 요

점을 좀더 정확히 표현하여 보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통 모르겠다. 너희들만 믿는다. 재직하는 동안에 큰 실수나 없었으면 한다”는 뜻이 아닌가? 이를 듣고 놀라고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칭찬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래도 그 사람은 겸손하잖아.”

사회공적의 두 번째 부류는 무식한 놈이 소신을 갖는 경우다.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 소신을 갖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 만일 소신이라도 없었으면 모르는 것은 주위에 물어 보고, 본인이 몸소 배우기도 하고, 상대방과 대화라도 잘될텐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일만 생기면 곧 소신론을 들고 나선다. ‘소신’이라는 말의 뜻은 “누가 무어라 해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비장하다”일 것이다. 무식한 소신파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깨닫는 경우에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소신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보았는가? 실수도 보완대상이 아니다. “소신껏 추진하다 보니 다소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위험한 사람을 우리들은 좋게 평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래도 그 사람 소신은 있잖아.”

세 번째 부류는 무식한 놈이 부지런한 경우다. 중요

한 자리에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선택은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는 길일 것이다. 이것이 어려울 때에는 무식하면서 게으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것이 차선의 방책이다. 게으르다 보니 하는 일도 적어서, 저지르는 실수도 자연 줄어든 것이 아닌가? 가장 최악의 선택이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는 경우다.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어떤 현상이 야기되는가? 건드릴 것 안 건드릴 것, 갈 곳 안 갈 곳, 끌어들이 것 안 끌어들이 것 모두 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사고를 저지를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도 일가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중에 친척간의 오해, 불화,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사람이 일가친척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공공기관, 사회단체에서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 국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러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골라내고, 도태시켜야 할 사회가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부지런하잖아.”

그렇다면 무식하면서 야망이 있고, 소신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맡겨야 할 것인가? 전문 지식이 필요없는 일자리도 찾아보면 많을 것이다. 지식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는데 소신이 부족해서 해결 안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만 지정해서 맡기면 될 것이다. 자원 봉사, 사회봉사, 해외파견, 아니면 교통이 복잡한 거리에서 하루 종일 밀려드는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도 있지 않은가.

■ 하마평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회공적 기미가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나 기업에서 중요한 인사발령이 발표되면 등용된 인물을 소개한 여러 가지 하마평을 신문지상에 볼 수 있다. 하마평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인물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사람들은 경력형 인물이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중요한 보직을 연이어 거쳤다는 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다른 이야기는 쓸 것도 없다. 경력형 인물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어떤 경우에도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없다. 어느 한 자리에 취임하는 것은 그 다음 자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생각이 강한 듯하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자리에 취임하는 즉시 그 다음 보직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로 인격형 인물이 있다. 담당기관의 현안문제점에 대한 견해, 산적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거론되지 않고, 상사와 관계가 원만하며, 취미는 무엇이며, 주량은 두주불사이며,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고, 부하직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인은 누구이고 자녀들이 몇이다 하는 식으로 끝맺음하고 있다. 인격형 인물에게서 배울 점도 있기는 하다. 무리한다고 꼭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휘몰아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며, 매사에 순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이들은 본분을 지킬 줄도 알고, 만나 보면 호감이 간다. 이들은 그 기관에 취임하여 보다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기관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요업무는 소홀히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유형이 기록형 인물이다. 기록형 인물은 평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어려운 일을 성공시킨 사람이라고 하면 된다. 읽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공감할 것이다. 쓸데없는 이야기도 필요없을 것이다. 중요한 기관에 취임한 사람의 취미, 가족관계, 교우관계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셈 아닌가?

기록형 인물들은 하는 일이 뻔하다. 목표를 설정하고 매진하기 때문이다. 취미활동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재미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사가 못마땅해 하는 경우도 있고, 주위 동료와 부하직원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록형 인물의 업무추진 방향은 과거 그의 행적을 보면 명백해진다. 성취감을 맛보았기 때문에 즉시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기록형 인물들에게는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통치자에게 사물을 꿰뚫어 보는 남다른 혜안이 있거나,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만 겨우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

스포츠계에는 기록형 인물이 많다. 재계에서도 기록형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는 기록형 인물이 부족한 듯하다. 만나 본 적은 없으나, 필자가 기록형 인물로 연상하는 분들은 박세직 전 올림픽조직위원장, 오명 전 체신부 장관이 생각난다. 서정욱 전 차관, 박운서 차관도 기록형에 속하는 편이다.

■ 사회공적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사회공적을 가려내는 한 가지 방법은 취임 기자회견 내용을 보는 것이다. 그의 회견내용에 과거의 관련업무, 현안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미래의 발전방안, 이의 추진을 위한 이정표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앞으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실무자들과 협의하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라면 연락받은 시기가 상관없을 것이다. 중요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왜 관심과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가? 바쁜 시간에 왜 업무의 시야가 좁은 실무자와 협의하는가? 직접 대답하면 될 것을.

사회공적을 가려내는 또 한 가지 지혜로 우리의 상식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책임이 막중하고 고생길이 트인 자리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 부담없이 나설 것이다. 산적한 문제,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일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경우일 것이다. 정말로 책임자라면 사양하고, 고사하고, 잠적할 것이다. 임명장을 받는 표정이 착잡할 것이다. 그러나 웃고, 좋아하고, 원근사방에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람은 사회공적의 증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야망이 부족한 소시민의 생각일지는 모르나 격심한 업무량에, 취미와 여가생활을 포기하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소홀해지며, 친구와 교우관계가 멀어지는 자리에 선뜻 나서는 사람은 누구일까? 경제적 여유는 있는가? 놀라울 정도로 적은 월급으로 식구들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가? 소시민의 상식으로는 중요공직에 임명되면 그 집은 초상집 분위기가 나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가?

우리 가정에도 사회공적이 있을 것이다. 가장이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는가. 무식한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것이 많다. 자신과 다른 세대인 자식들에게 본인의 한정된 경험과 해묵은 소신을 강요하는 부모는 없는가? 자녀가 직접 경험하고 느껴야 될 사물을 쉴 사이 없이 쫓아다니며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없는가? 결국 우리 가정에서 사회공적이 자리를 감추어야 국가사회에서도 국가공적이 사라질 것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사회공적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사회분위기가 이들을 너그럽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공적은 예상 외로 이 사회에서 빨리 사라질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남에게 속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누구의 속이 보인다는 말의 뜻은 그 친구는 무시할 만하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가 좀더 노력하여 사회공적들에게 속이 보인다는 표시만 하여 주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그들이 사회공적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또 하나의 대안은 각고면려의 노력 끝에 사회공적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우리 국가사회에서 사회공적들만 사라진다면 우리의 발전속도는 견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다.

일전에 어느 조찬모임에서 사회공적을 물리치는 방안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합창단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 합창단은 중요한 기관장의 취임식마다 찾아갈 것이다. 이 합창단원들은 취임사를 주의 깊게 들을 것이다. 취임사 내용 중에서 이들이 사회공적임이 드러나면 합창단 지휘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지휘봉을 들 것이다. 그리고 합창을 하는 것이다. “어깨도 무거우실텐데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라고.

우리 국민들은 중요한 자리일수록, 책임이 큰 기관일수록 기록형 인물이 임명될 것을 기원하여야 한다.